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 연중 시기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 35)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금)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8/4(일) 연중 제 18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성수예식과 8월 축일자 축하식이 있습니다.
- ▶ 7/23 ~ 8/17(토) 본당 신부님 휴가 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 8/11(일) 연중 제 19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본당 신부님 하계 휴가 일정

▶ 7/22(월) ~ 8/17(토)

### ◎환영합니다.

신부님 휴가 기간동안에는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 및 장소	참가비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빙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카트+ 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그린피+ 파워카트 + 중, 석식 + 선물)

### ◎성모회 마늘 판매

▪ 10LB(Large) 80 볼 / (Medium) 75 볼  
주문은 각 구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는 미사 후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30-50 대 형제 자매님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8/31(토) 11:00 친교실

### 공소 소식

- ▶ 이번주 간식은 엄혜영 에스더 자매님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 8월 공소 신자 축일자 축하합니다.  
(8/15) 정영숙 마리아  
(8/18) 김명숙 헬레나  
(8/21) 이춘혜 그레이스
- ▶ 김경선 베네딕도 (사위) / 김화정 모니카 자매님의  
모친 윤순이 (향년 92세)께서 7/30(화)에  
선종하셨습니다. 미사 후에 연도합니다.

### 단체 소식

- ▶ 2024 캐나다 한인 남성 제 43 차 꾸르실료 주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기 위한 형제를 위한 꾸르실료 주말 교육의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9월 5일(목)~9월 8일(일)  
\*신청 및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 ▶꾸리아

8/11(일) 12:45 학상실  
모든 간부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식사

7,8월은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18 명)			
주일현금	\$1940	교무금	\$300
감사현금	\$0	성전건립	\$380

###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주일학교 \$100 (우경숙 윤리아)

###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8월 본당 세례 축일자 (38 명)

- 8/ 7 클라우디아(윤은주)
- 8/ 8 도니미코(한성준)
- 8/11 글라라(우미란, 최경애, 김영신, 임예천, 송혜란,  
정명자)  
수산나(주수원, 장순태, 박혜영)
- 8/12 요안나(김정해)
- 8/15 스텔라(이경지, 김영미, 박양숙, 김승희)  
마리 스텔라(강서윤, 나윤하), 셀리나(김지유)
- 8/16 스템파노(김춘삼, 윤철)
- 8/18 헬라나(김경희, 김나은, 조은자)
- 8/20 사무엘(민명식, 신명철)
- 8/21 그라시아(신민영)
- 8/23 로사(류정옥, 김용순, 하대교, 고예진, 김영미)
- 8/27 모니카(최광수, 이은자, 함영자), 요한(전대원)
- 8/28 아오스팅(우금환)
- 8/29 사비나(김양월)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8/4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이인선 점마 박규혜 카타리나
8/11	박혜영 수산나	최두원 스템파노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한욱 예릭 2 독서: 임연신 비아	권희진 요안나 김영미 스템파노
8/18	김성수 베드로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한욱 예릭 임연신 비아

## 영원한 생명의 양식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  
옥동성당 주임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오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곧 생명의 빵!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성사를 영하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이렇게 알아들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라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요한 6,31)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과 군중들이 요구하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빵은 어쩌면 처음부터 결돌 수밖에 없는, 어긋난 텁니바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청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워줄 일상의 빵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성체여야 합니다. 물론, 육신 생명과 이 세상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라면 하느님 말씀과 계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전례를 이끄는 말은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풍요로운 자원을 사람들 손에 맡기시고, 당신 자녀들인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1독서 탈출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너희는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나는 이렇게 이 백성을 시험해 보겠다.”(탈출 16,4)

그렇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생명의 양식으로 거듭난 이들은 먼저는, 당신 자녀들의 식탁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심과 둘째는, 그날 먹을 만큼 날마다 청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또 그렇게 살아냅니다. 욕심내지 않는다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분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배운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이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조개어 나누어져  
생명을 주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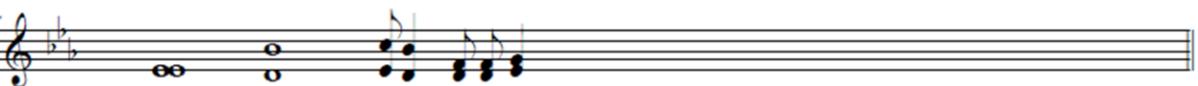


## 연중 18 주일

(2024. 8. 4)

제 1 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6,2-4.12-15

화답송 시편 78(77),3 과 4 그루. 23-24.25 와 54(◎ 24 참조)



후렴.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20-24

복음 환호송 마태 4,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5